

정부파견 해외봉사자의 경험과 의미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지방외교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오 지 은*

유 성 훈**

국문요약

지방외교(local diplomacy)는 배타적 이익이 아닌 기후·환경, 인권 등의 인류 보편적인 개발 의제를 다루며, 초국적기업, 비정부기구, 개인 등과 상호호혜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다양한 지방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직 역량, 예산, 전문인력, 콘텐츠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외봉사에 대한 지방외교 차원의 잠재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는 142개국에 약 8만 5천 명의 해외봉사자를 파견하였으며, 현지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소프트파워(soft power)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990년부터 2020년 사이 활동한 32명의 인터뷰 자료를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활동 국가 내에서 다층적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SNS를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둘째, 지역 전문성과 글로벌 시민성을 갖추고, 글로벌 의제와 신을 연결하며 살아가며, 셋째, 해외봉사 가치를 자신이 속한 지역에 환원하거나, 활동 국가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들이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이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시민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지방외교의 공적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방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는 갖는다는 예비이론을 제시한다.

주제어: 지방외교, 근거이론, KOICA, 해외봉사, 네트워크

I. 서론

지방외교(local diplomacy)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외교를 보충하는 '동반외교(paradiplomacy)' 입과 동시에 특수한 지향성을 갖는 지방외교(sub-state regional diplomacy)의 영역을 구축한다(Kuznetsov, 2014: 2; 송기돈, 2019). 국가 중심의 공공외교가 정치적이고 주변 정세의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지방외교는 비교적 주변 정세로부터 자유롭고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으며(양

* 제1저자

** 교신저자

현모 외, 2007), 기후변화나 인권, 평화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류협력을 하며 상호 호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외교와의 차별성을 갖는다(안성호, 1998). 또한, 국제기구, 초국적기업,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개인 등의 비공식적 부문을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로서의 중요성이 있으며(고경민, 2008; 최정목·유병선, 2022), 최근에는 ‘개인(individuals)’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Kuznetsov, 2014: 1-2). 한국은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공공외교 협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외교정책과 지방외교를 연계하였다. 공공외교 차원의 지방외교 외에도 지방정부는 자매·우호 도시 및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 등과의 독자적 외교활동을 펼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직과 예산 부족(박경국, 2006), 교류 협력 국가의 특정 지역 편중 문제, 이벤트성 사업 추진 및 지방외교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지적된다(고경민, 2008:4; 우양호·이정석, 2010: 23).

기존의 공공외교 논의에서 대안적 공공외교의 행위자로 해외봉사자들의 역할에 주목하였다(Georgeou & Nichole, 2012; Jackson & Adarlo, 2016; Tiessen, & Lough, 2021). 현지 주민과 장기 간 함께 생활하며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통해 현지 주민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여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개발 문제 해결과 글로벌 의제 달성에 참여하는 풀뿌리 참여(grassroots participation)의 방식이자(Hill & Stuart, 2012; Sobocinska, 2023; Terrazas; 2010), 국제관계 영역을 확장하고 전통 외교 채널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룹이 지구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Sobocinska, 2023). 한국 정부도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정부 재원을 활용하여 해외봉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과 양국 간 우호 증진을 목표로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142개국에 약 8만 5천 명을 파견하였으며, 한국의 해외봉사 규모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해외봉사에 대한 외교 차원의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논의는 해외봉사자 개인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외교 관점의 학술적·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봉사의 공공외교적 함의에 관한 기존 논의를 확장하여 이들이 귀국 후 지역에 흠어져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고, 지방외교 관점에서 이들의 새로운 역할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핵심 연구 질문은 “지방외교 관점에서 해외봉사자들이 갖는 잠재력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발휘될 수 있는가?”이다. 연구 대상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한 해외봉사자 32명이며,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통해 예비 이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최근 지방외교의 행위자로서 개인(individuals)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국제개발협력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해외봉사를 지방외교와 연계하여 새로운 의미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다음 II장에서는 지방외교 개념과 해외봉사에 대한 외교적 논의를 제시하고, 연구 방법론인 근거이론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한국 정부 파견 해외봉사 추진 현황 등을 상세히 다루고, IV장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을 제시한다. V장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를 기술한 후, 이를 이론의 생성 과정을

도식화하고, 핵심범주를 도출하여 지방 외교적 관점의 예비 이론을 도출한다. 마지막 VI장에서는 연구 결과와 함의, 한계를 논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방외교에 관한 논의

1) 지방외교 개념

지방외교(local diplomacy)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이익을 목표로 기획되고 추진되는 국제교류 및 협력 활동이다. 공공외교에서 중앙정부가 국가 및 국제 행위자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의 주체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지방외교는 지방 차원의 독자적인 교류협력을 수행한다(고경민·황경수·홍민지, 2008: 287-289). 지방외교의 등장은 지구화, 네트워크화, 복잡화 등의 새로운 추세에 따른 외교(diplomacy) 양식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1990년 나이(Joseph Nye)는 문화, 이념, 제도 등 무형의 파워를 강조하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제시하고,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파워 간의 조합을 강조하였다. 특히, 문화(culture)는 핵심적인 도구로, 문화교류, 해외방송, 영화, 음악 등을 활용한 문화외교가 활발하다(H. Nicolson, 1988), 한국 정부도 한류(Korea Wave)를 포함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나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 등을 스마트파워의 전략으로 활용한다(외교통상부, 2012).

스마트파워의 한 형태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이다. 전통 외교의 대상이 상대국 정부인 반면, 공공외교는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수행한다(J. Melissen, 2005; 김상배, 2012). 2005년 호킹(Hocking)은 공공외교에 있어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개인 등의 다양한 행위자가 제공하는 자원을 관리하는 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존에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전통 외교의 권한을 다양한 행위자에게 분산함으로써 이들 간의 수평성, 상호성을 기반으로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Smythe & Smith, 2002; 고경민, 2008), 이러한 동학 속에 ‘지방외교(local diplomacy)’가 등장했다. 지방외교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메시지를 상대국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더 많은 사람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관계 맺기’를 통해 공감을 얻어내야 하는데, 인간이 소통의 도구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네트워크는 변화하므로 인간과 SNS의 네트워크 간 구성이 중요하며, SNS(Social Network Service, SNS) 또한 단순한 소통의 플랫폼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로서의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김상배, 2012: 123~127).

지방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교류 협력의 의제와 행위자의 다원성이다. 첫째, 지방외교는 국제교류, 국제통상, 국제협력으로 범주화되며,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지방 기업의 수출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통상이 일반적이며(박경국, 2006: 112), 공동체의 상호호혜적 이익 달성을 위해 환경보

호, 사회개발, 인권보장 같은 전 지구적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와 협력을 수행한다(안성호, 1998: 228~235). 지방정부의 ‘내향적 국제화(inward internationalization)’¹⁾ 차원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공존을 위한 물질적 지원과 시민의식 제고도 중요한 의제가 된다(우양호, 2012: 197~198). 둘째, 지방외교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한다. 배타적 이익보다 인류와 지방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다양한 협의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기업, 학계, 연구 기관, 종교, 시민사회, 개인 등의 비공식적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고경민, 2008). 최근에는 ‘개인(individuals)’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Kuznetsov, 2014: 1-2), 풀뿌리 수준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외교적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경민, 2008).

다원적 주체가 참여하는 지방외교는 다양한 의제를 다루면서, 복잡하게 결합되는 현상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한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송기돈, 2012: 343-344). 그러나, 지방외교는 조직과 예산 부족 문제라는 취약성과 교류협력 국가의 지역 편중, 이벤트성으로 추진이라는 한계, 전문인력 취약성 등의 한계가 지적되며(고경민, 2008:4; 우양호·이정석, 2010: 23), 이를 위해 공공-민간의 경계를 허물고 외교 행위자를 확대하고 외교활동의 수준과 영역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경민, 2008: 286-287).

2) 해외봉사의 지방외교적 함의

세계 다수 국가는 해외봉사자를 국가의 대안적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는 해외봉사의 근원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현지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현지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입된 해외봉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문화와 사고를 경험하면서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현지 주민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다(Tiessen & Lough, 2021), 이러한 점에서 해외봉사자들을 국가 간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도구이며(Georgeou, 2012; Jackson & Adarlo, 2016), 지역사회 간 국제적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식한다(Lough et al., 2014). 해외봉사자들은 활동 국가의 언어와 관습,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민성이 향상된다(김찬란 외 2011; 박인심, 2019). 활동을 중요한 귀국 해외봉사자들도 외교적 가치를 창출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풀뿌리 외교(grassroots diplomacy)를 수행하고, 국제관계의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전통 외교 채널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룹이 국제 문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Sobocinska, 2023). 일본의 해외봉사는 정부-민간을 연계한 최초의 공공외교 제도이며, 국가 간 공식 외교나 기업의 비즈니스를 통해 수행

1) 내향적 국제화(inward internationalization)는 ‘안으로부터의 국제화’를 의미하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방문외국인(foreigners)과 정주외국인(foreign residents)과의 공존을 지향하며 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과 시민의 의식까지 향상시켜 나가는 개념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내부적 역량과 대응”을 의미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주민 권리 등의 도덕적 개념들을 뿌리로 두고 있으며, 국제화 수준을 판단하는 질적 측면이자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진다(우양호, 2012)

할 수 없는 풀뿌리 수준의 문화외교와 국민외교를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한다(한송이·최은봉, 2023). 한국도 해외봉사자 공공외교의 전략으로서 효과적 수단임을 논의한 바 있다(주미영, 2015).

공공외교는 지방외교에 발전적 함의를 갖고며, 해외봉사가 공공외교의 주요한 도구가 되는 만큼 공공외교-지방외교-해외봉사 간 관계를 비교하여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신 공공외교로의 전환은 외국의 대중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민을 공공외교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국민외교(people diplomacy)’와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자 간 공공외교의 공동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지구적 공공재에 관심을 갖는 ‘지구 공공외교(global public diplomacy)’ 개념을 등장시켰다(송기돈, 2019: 79-82).

<그림 1> 해외봉사와 공공외교, 지방외교 간 관계

시기	1910-20년대 (1차 세계대전)	1930-50년대 (2차 세계대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공공외교	전통 공공외교 (국가 공공외교 national public diplomacy)		신공공외교 (국민 공공외교 people diplomacy, 지구공공외교 global public diplomacy)				
지방외교	전통 지방외교		신 지방외교				
	지방정부-글로벌 네트워크		도시외교				
해외봉사	국제워크캠프, 선교봉사	해외봉사 자 파견, UN 창립	해외봉사 세계적 확대	UNV 설립, 예산 확대	정부 예산 금감, 민간 재원 확대		MDGs/ SDGs 기여 활동
주요내용	문화교류, 평화, 국제협력 촉진	신생독립국 지원봉사 캠프 확대	전문 인력, 청년 참여 확대	인적 교류, 상호 협력	시민 참여 확대 (봉우리 참여, 지역 자조, 민간개발)	국제자원봉사 다양화, 다각화	온라인 봉사 동등
채려대입	평화, 국제협력, 상호이해		박애, 봉사	현직주민 참여 상호 학습	시민의식 강화	세계시민, 사회정의, 개인/공통체 건설	개발도상국 발전, 공헌, 봉사
한국 해외봉사						한국 정부 해외봉사자 파견(1990)	해외봉사자 파견 규모 확대

자료: Lough(2015), 권상철(2018), 송기돈(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지방외교도 신 지방외교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행위자가 외교에 참여하고, 외국의 대중과 지역의 대중 및 국내 타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호혜적인 외교활동을 펼치게 되었다(송기돈, 2019: 83-86). 해외봉사는 1930년대 전후 식민지를 대상으로 국제협력, 상호이해 및 평화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Smith et al., 1981), 1945년 유엔(United Nations, UN) 설립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해외봉사 규모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해외봉사에 대한 정부 재원이 축소되었으며,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함께 시민참여가 확대되면서 지역 자조(local self-help), 풀뿌리 참여(grassroots participation),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을 위한 해외봉사자들이 역할이 증시된 것이다(Lough, 2015: 2). 2000년대 국제화 시대로의 전환은 타문화 이해도와 개방적 사고를 갖춘 시민 수요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계 각국이 해외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해외봉사의 양적 확대가 본격화 되었다(Lough, 2015). 해외봉사자들은 각국의 시민으로 SDGs 등의 글로벌 의제 해결에 참여하는 등 풀뿌리 외교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인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봉사자들이 지방외교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개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지방외교 행위자로서의 잠재성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2. 근거이론(Grounded Theory)

Strauss와 Corbin(1989)이 제시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은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여 이론화하는 '질적코딩(qualitative coding)'을 특징으로 한다(윤건수, 2008). 깊이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 방법과 절차, 질적자료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체계적 자료 수집 방법과 분석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어 분석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적코딩은 분석 대상인 질적자료로부터 연구 문제와 연관된 문장, 단어 등의 의미를 식별하고, 개념 차원의 코드(code)를 부여하여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화하는 과정을 뜻한다(이동성·김영천, 2011).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비판이 있으나, Strauss와 Corbin(1989)은 완벽한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엄밀함의 최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 수행 시에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공동 연구자 간 반복되는 소통을 통해 엄밀성이 담보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판단하는 주요 척도가 된다.

근거이론은 체계적인 코딩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분석 자료에 대한 '개방코딩(open coding)'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화의 과정으로, 특정 현상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분석 자료 내에서 개념을 형성 및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취합된 전사 자료를 줄코딩하여 추상적 의미로 개념화시키고, 줄 단위로 흩어진 개념을 다시 취합하는 과정을 통해 각 개념을 대표성 있는 범주로 묶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념의 집합들은 다시 하위범주가 되고, 하위범주를 묶을 수 있는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 '축코딩(axial coding)' 과정이다. 앞선 개방코딩에서 형성된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에 부합하도록 연결하는 과정으로, 각 범주들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패러다임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단계로 구성된다. '인과적 조건'은 특정 현상이 발생하거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며,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특수한 조건이다.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어떤 현상을 일상적 또는 전략적으로 다루면서 영향을 조절한다. 최종 '결과' 단계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상황에 반응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한 설명이다. 세 번째,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핵심 범주를 선택하고 다른 범주와 연관지어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범주를 연결함으로써 이론을 통합하는 정교화의 과정으로, 이전의 개방코딩, 축코딩의 개념보다 추상성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가 해외봉사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외교 차원에서의 의미있는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Ⅲ. 해외봉사 추진 현황

세계 각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문화 간 경계를 넘어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봉사를 추진한다(UNV, 2015). 세계 주요국의 해외봉사 파견 현황은 <표 1>과 같다. 주로 외교 담당 부처를 통한 직접 또는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국내 정치, 재원의 출처, 사회·문화 등 인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추진 목표를 갖는다. 대체로 국제개발협력의 공동 목표인 위해 개발도상국의 불평등과 빈곤퇴치, SDGs 기여 활동을 펼치며, 미국과 한국과 같이 양국 간 우호증진을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다. 한국 정부는 1990년부터 해외봉사자 파견을 시작하였으며, 파견 규모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수준에 달한다.

<표 1> 주요 공여국의 해외봉사단 파견 제도 현황

구분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추진방식	정부운영	정부운영	정부운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설립연도	1961년	1990년	1965년	1958년	1951년	1961년
추진목표	세계평화, 우애증진	SDGs 달성, 우호증진	협력국 SDGs 달성	빈곤퇴치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	빈곤과 불평등 해소
파견국가	142개국	142개국	75개국	90개국	89개국	100개국
파견인원	24만 명	8만 1천 명	5만 5천 명	8만 명	1만 명	1만 5천 명

자료: 이상안 외(2021: 143)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989년 한국 정부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 전문인력을 양성과 청년층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청년해외봉사단(Korean Youth Volunteers) 창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²⁾ 1990년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한국 위원회를 통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44명의 단원을 최초 파견하였다. 1991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통해 정부 파견 해외봉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약 84,169명이 파견되었으며, 연도별 파견 현황은 <표 2>, <그림 2>와 같다. 1995년은 신외교를 표방하며 국제화와 세계화를 추동하던 시기(박종삼, 1985), 해외봉사자를 민간외교의 도구로 인식하고 한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파견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³⁾ 2008년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 계획」에 따른 청년 해외 진출,⁴⁾ 2011년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차원의 해외봉사 확대,⁵⁾ 2015년 「K-Mov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속적으로 양적 규모가 확대되었다.⁶⁾

2) 출처 : <https://artsandculture.google.com/partner/korea-international-cooperation-agency?hl=ko>

3)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32074> (검색일시 : 2023년 8월 5일)

4)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4421428> (검색일시 : 2023년 8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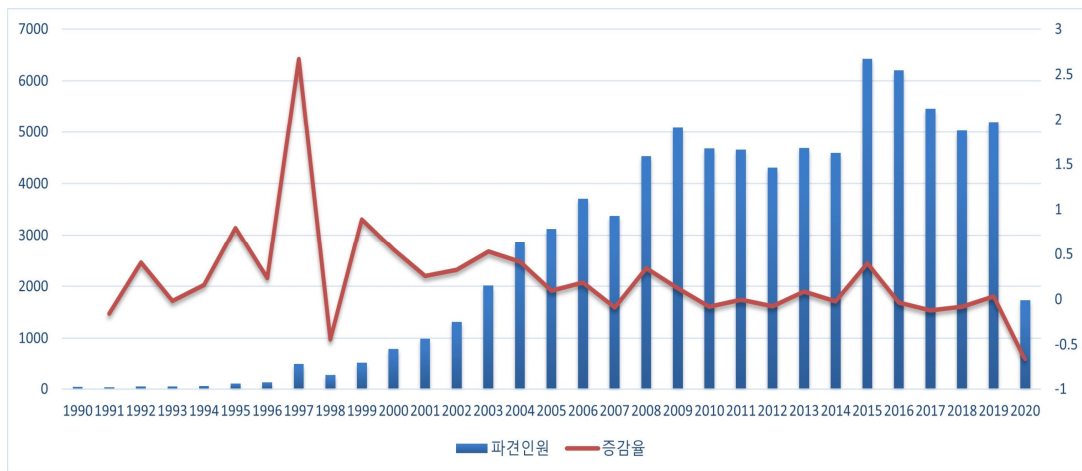
5) 출처 : <https://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311> (검색일시 : 2024년 2월 1일)

〈표 2〉 1990년~2023년 한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연간 파견 인원(단위:명)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1990	44	1996	131	2002	1,316	2008	4,530	2014	4,590	2020	1,736
1991	37	1997	481	2003	2,014	2009	5,082	2015	6,427	2021	131
1992	52	1998	269	2004	2,853	2010	4,682	2016	6,207	2022	1,522
1993	51	1999	508	2005	3,122	2011	4,657	2017	5,465	2023	3,279
1994	59	2000	789	2006	3,708	2012	4,312	2018	5,032	합계	84,169
1995	106	2001	994	2007	3,375	2013	4,687	2019	5,200		

주: 2023년은 확정 실적을 공개 전으로 외교부 봉사분과협의회가 확인한 연간 목표 인원을 작성함.
 출처 : 「한눈에 읽는 2022년 WFK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1990~2020년 한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증감 현황



출처 : 「한눈에 읽는 2022년 WFK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은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로 불린다. 2009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6개 부처가 각각 추진하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WFK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였으며, 외교부 주관하에 〈표 3〉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1주부터 최대 3년까지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활동을 수행하며, 참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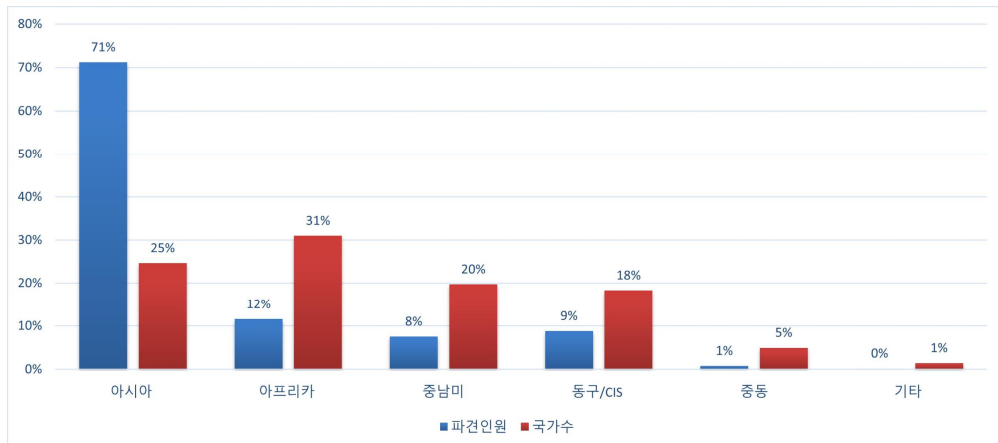
〈표 3〉 월드프렌즈코리아(WFK) 프로그램 개요

부처명	시행기관	프로그램명	파견기간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해외봉사단	1년~2년
		KOICA 자문단	1년~3년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자문단	1년~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지원단	1년~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T봉사단	4~6주
교육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청년봉사단	2~3주
	태평양아시아협회		
	국립국제교육원	교원해외파견사업	1년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봉사단	4~5주, 6개월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한의약해외봉사단	1주, 1~2개월

자료: 월드프렌즈코리아 브로슈어(2022년)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들에게는 현지어, 타문화 이해, 세계시민 등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해외봉사자들은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지역의 일선 교육 기관, 지방정부 및 하위기관, 민간 등에 파견되며, 현지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활동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총 142개국에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였으며,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륙별 파견 현황은 〈그림 3〉과 같다.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지역은 아시아로 35개국에 58,845명(71%)이 활동하였으며, 동구와 CIS 26개국 7,278명(9%), 아프리카 44개국 9,543명(12%), 중남미 28개국 6,215명(8%)이 파견되었다.

〈그림 3〉 대륙별 파견인원 및 파견국가 수 비율(1990-2022년)



주: 기타 지역은 WFK 태권도봉사단을 파견한 미국과 캐나다임.

출처: 「한눈에 읽는 2022년 WFK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 정부 파견 해외봉사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국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해외봉사에 참여한다. 2023년 한해 KOICA 해외봉사단 지역별 지원자 현황 및 비중은 <표 4>와 같다. 총 922명의 지원자 중 450명(49%)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이며, 나머지 472명(41%)이 지방 거주자로 확인된다. 부산이 73명(1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구 58명(12.3%), 대전 54명(11.4%), 경상북도 43명(9.1%) 등이 뒤를 잇는다.

〈표 4〉 2023년 KOICA 해외봉사단 지역별 지원자 현황 및 지역 비중(단위:명)

지역명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지원자	33	29	43	42	58	54	73	1
비율	7.0%	6.1%	9.1%	8.9%	12.3%	11.4%	15.5%	0.2%
지역명	울산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방 지원자 합계	
지원자	5	21	33	15	31	34	472	
비율	1.1%	4.4%	7.0%	3.2%	6.6%	7.2%	100.0%	

주: 정부의 지역인재 구분에 따라 출신학교(고등학교,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임.
자료: KOICA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IV. 분석 방법

1. 연구자 및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주저자는 정부와 민간이 파견하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3년간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1년간 정부 파견 해외봉사를 총괄하는 KOICA 소속으로 국내·외에서 해외봉사를 담당하였다. 봉사단 모집, 선발, 지원, 성과관리 등 오랜기간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본 연구의 대상인 해외봉사자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참여 경험과 의미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다. 공동 저자는 디지털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ODA 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의 파견 인력을 포함한 해외봉사 참여자들의 개인적·정책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문화, 디지털 ODA와 공공외교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고 있다. 연구 대상자는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사업 중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KOICA 해외봉사단이며, KOICA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NGO봉사단을 포함한다. KOICA는 2021년 ‘정부파견 해외봉사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21년 사이 활동한 32명의 해외봉사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해외봉사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세부 대상자 현황은 <표 5>와 같다.⁷⁾

〈표 5〉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순서	이름	파견부문	파견국가	연령대	파견시기
1	권○○	정부	태국	20대	2017-2020년
2	김○○	정부	스리랑카	20대	2013-2014년
3	김○○	정부	방글라데시	20대	2009-2011년
4	김○○	정부	필리핀	20대	2012-2014년
5	김○○	정부	몽골, 에티오피아	50대	2013-2015년 2018-2020년
6	벗○○	정부	몽골	20대	2019-2020년
7	성○○	정부	파푸아뉴기니	30대	1991-1993년
8	손○○	정부	몽골	30대	2011-2013년
9	신○○	정부	방글라데시	20대	2012-2014년
10	신○○	정부	에콰도르	20대	2008-2010년
11	신○○	정부	캄보디아, 미얀마	50대	2011-2013년 2014-2020년
12	엄○○	민간	베트남	20대	2006-2006년
13	오○○	정부	탄자니아	20대	2012-2014년
14	오○○	민간	말라위	20대	2013-2013년
15	유○○	정부	몽골	20대	2005-2007년
16	윤○○	정부	에콰도르, 모로코	20대	2010-2012년 2017-2019년
17	이○○	민간	과테말라	20대	2018-2018년
18	이○○	정부	몽골, 에콰도르, 라오스	50대	2013-2014년 2016-2018년 2019-2020년
19	이○○	정부	튀니지	30대	2009-2012년
20	이○○	민간	동티모르	20대	2007-2009년
21	이○○	정부	몽골	20대	2015-2016년
22	임○○	정부	르완다, 라오스	60대	2014-2016년 2017-2019년
23	장○○	정부	온두라스	20대	2016-2017년
24	전○○	정부	인도네시아	20대	1990-1992년
25	정○○	정부	인도네시아	20대	2001-2009년
26	정○○	정부	카메룬	40대	2013-2020년
27	차○○	민간	캄보디아	20대	2016-2017년
28	최○○	정부	태국	20대	2017-2017년
29	최○○	정부	에콰도르	30대	2007-2009년
30	최○○	민간	미얀마	30대	2018-2020년
31	한○○	정부	태국	20대	1993-1995년
32	황○○	민간	필리핀	10대	2015-2015년

주: 공개된 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7) KOICA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 시,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이론적 표본추출방법(theoretical sampling)을 적용하여 활동 시기, 활동 국가, 활동 분야,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본추출(relational and variational sampling)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해외봉사단원 및 파트너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락처를 수집한 후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촬영에 동의한 경우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분석에 활용된 질적자료는 KOICA가 제작한 「해외봉사 30주년, 30인 인터뷰」 영상물 30편이다. 공개된 영상물은 편당 10분에서 15분 분량으로 편집되었으며, 2인이 1편에 출연한 경우 인터뷰 내용을 각각 전사하여 총 32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작된 영상물은 2021년 WFK 해외봉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⁸⁾ 인터뷰 전사본은 총 303페이지 분량이며, 이를 원자료로 활용하여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주관성 확보를 위해 공동 연구자 간 상호 교차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해외봉사에 대한 이해가 깊은 동료 1인을 통해 추가를 실시했다.⁹⁾ 개방코딩에서는 줄단위 분석을 실시하고, 축코딩 과정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에 맞춰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증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순으로 현상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를 설정하고 '지방외교 관점에서의 해외봉사자가 갖는 잠재성'을 발견하기 위해 전체적인 이야기 윤곽을 만든 후, 예비이론을 제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개념화 및 범주화 : 개방코딩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줄 단위로 개방코딩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추상성이 있는 모둠으로 엮어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개방코딩 결과 58개의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개념이 모호한 경우 공동 연구자의 상호 검토와 해외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료 검토를 통해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간주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14개의 하위범주, 6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되었다. 최상위 범주는 해외봉사 참여 요인, 해외봉사 특성, 현지 적응 한계, 새로운 역할 모색, 우호적 관계 형성, 해외봉사 가치 지속의 6개 범주이다.

8) 자료 : <https://www.youtube.com/@WFKvideo/playlists>

9) 동료 'A(정OO)'는 정부파견 해외봉사사업 관련 19년 경력자로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가 깊다.

〈표 6〉 자료의 범주화

패러다임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해외봉사 참여 요인	개인적 가치	나눔과 봉사하는 삶에 대한 관심, 글로벌 의제 관심, 국제 교류 활동에 관심
		커리어 개발	단기 봉사 경험을 확장하여 장기 봉사 참여, 취업을 위한 역량 신장, 개인적 역량 신장, 개발협력분야 진출을 위한 경력 쌓기,
		여가, 도전	퇴직 후 노년의 새로운 삶 도전, 지친 일상에서 도피, 자신감을 얻기 위한 도전 자신의 변화, 호기심
맥락조건	해외봉사 근원적 특성	개인적 특성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입견, 해외봉사자별 상이한 역량 수준
		파견국 특성	현지어 학습 어려움, 상이한 활동 여건(질병, 안전, 음식 등), 상이한 외국인 수용성, 문화적 이질성, 활동기관의 해외봉사에 대한 낮은 인식, 한국-활동국가의 사회제도적 차이
		제도적 특성	현지 주민과 밀착하여 생활 및 활동 추진
중심현상	현지 적응 한계	낮선 환경에 어려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의사소통 한계, 주어진 역할 대비 부족한 역량 인지, 문화적 차이, 열악한 생활 여건
중재적 조건	새로운 역할 모색	한국 문화 교류	문화교류 행사, 한식, K-pop,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 수업
		지역 기여 활동	지역 주민의 새로운 활동 수요 적극 이행, 지역 봉사, 의료봉사, 지역 내에서 새로운 역할 탐색,
작용/상호작용 전략	우호적 관계 형성	모범적 활동 추진	성실한 활동, 동료 단원과의 협력, 활동에 현지 주민 참여 기회 제공, 현지 주민 역량 강화
		적극적 소통 노력	현지어 역량 향상 노력, 마음가짐 변화, 다양한 층위의 관계 형성 노력, (수혜자, 기관관계자, 친구, 현지어 강사 등), 타국 봉사단과의 교류, 여가 시간 공유
결과	해외 봉사 가치 지속	네트워크 지속	SNS를 통한 소통 지속 직접 교류(여행, 출장)
		봉사 가치의 국내적 환원	해외봉사 이후 삶의 가치관 변화, 국내 취약계층 지원 활동, 지역 내 외국인(이주민 등)에 대한 관심 강화, 글로벌 의제에 대한 관심 새로운 역할 탐색,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으로 진로 변경
		활동 국가 관심 지속	물질적, 정서적 지원 지속, 활동 국가에 해외봉사 재파견 희망, 활동 국가 긍정적 이해 제고 활동, 활동 국가 사회문제 해결 위한 창업

2. 축코딩 :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분석

개방코딩에서 생성된 범주를 인과관계에 따라 연결하여 근거이론이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패러다임 모형 구축하였다. 먼저, 인과적 조건-중심 현상-결과로 연결되는 기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맥락적 조건과 증재적 조건을 설정한 후, 중심현상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존재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속하는 범주를 구성하였다. 각 범주에 대한 논의는 해외봉사 참여 전(인과적 조건), 해외봉사 참여 과정(맥락적 조건, 증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해외봉사 참여 후(결과)의 단계로 확장하여 기술하였다. .

<그림 4> 패러다임 모형



1) 중심현상 : 현지 적응 한계

중심현상은 연구의 핵심이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Strauss & Cobbin, 1989). 16개 하위 범주 중에서 '현지 적응 한계'라는 현상이 중심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파견 이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나, 의사소통 자체의 어려움과 주어진 역할 대비 자신의 역량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문화적 이질성은 성인지 감수성과, 주거, 안전 등의 문제로 이어졌으며, 열악한 생활환경과 활동기관의 해외봉사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협업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도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과테말라가 치안이 그렇게 좋은 국가가 아니예요. 중남미에 마피아들도 많고 총기를 소지할 수도 있고요. 한국인이나 동양인들은 현지인들에게 타겟이 되기 때문에...100미터를 걸어갈 때도 보통 택시나 이런 안전한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요. 이동의 제약 그리고 치안 문제가 제게 주는 심리적인 부담감 등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점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00/20대/과테말라/2018-2019년)

문화적 이질성, 언어소통 한계 “저희는 구경을 잘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달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언어 소통, 그 사람들의 말로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서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 내고 해내야 된다는 것 그게 저는 제일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00/30대/몽골/2011-2013년)

열악한 생활 환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사활동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나 기후 이런 조건들이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는 원체 더운 나라고 습도가 높아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 입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럴 때가 봉사활동에 지장을 많이 받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신00/20대/과테말라/2018-2019년)

역량 부족에 대한 인식 “너무 어릴 때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곧바로 파견됐으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가서 좀 좌충우돌하고 어리둥절했던 것이 아쉽고요...” (한00/20대/태국/1993-1995년)

2) 인과적 조건 : 해외봉사 참여 요인

인과적 조건은 중심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설명하는 선행 조건이나 사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bbin, 1989). 개방 코딩 결과 '현지 적응 한계'라는 중심현상을 발생시킨 조건은 해외봉사 참여자들의 상이한 '해외봉사 참여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 가치'와 '커리어 개

발', '여가 또는 도전'을 위해 해외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적 가치'가 해외봉사 참여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평소 나눔과 봉사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한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나, 인권·평화 등의 다양한 글로벌 의제에 대한 관심과 막연한 국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해외봉사에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눔과 봉사하는 삶에 대한 관심 "TV 프로그램에서 <네팔의 돌 깨는 아이들>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돌을 깨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 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외 봉사를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 (신00/50대/캄보디아/2011-2020)

글로벌 의제에 대한 관심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질병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해외봉사가 앞으로 필요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보건의료, 교육 세 가지만 농촌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외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성00/20대/파푸아뉴기니/1991-1993년)

국제활동에 대한 관심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벽에 세계지도를 그려 넣고 도시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지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막연하게 국제 활동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코이카는 그것들을 제게 현실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작점..." (유00/20대/몽골/2005-2007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직업을 찾기 위한 '커리어 개발'을 목적으로 해외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단기 봉사 경험을 확장하여 장기 봉사에 참여거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취업 스펙 중 하나로 해외 경험이 필요한 경우, 국제개발협력분야 진출을 위한 경력 쌓기를 위해 해외봉사에 참여하였다. 태권도와 같이 당초 국제적 교류가 많거나, 현장 기반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외봉사 참여 의지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봉사 경험의 확장 "단기로 국제 워크 캠프 참여를 하기도 하고, 중기(봉사단으로)로 해외 봉사를 6개월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해외 현장을 가고 싶은 마음에 찾아보다가...NGO를 통해서 하는 1년짜리 봉사도 있다는 걸 듣고...1년짜리 해외 봉사를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00/20대/말라위/2013-2013년)

취업을 위한 역량 신장 "취업 준비생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해외 안 번도 안 나갔나 왔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충격을 받아서 해외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김00/20대/필리핀/2012-2014년)

개인적 역량 신장 "태권도 선수가 코이카로 봉사를 갔다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코이카 다녀온 선배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코이카의 의

미도 잘 몰랐지만 무조건 코이카를 가야겠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00/20대/에과도르/2008-2010년)

개발협력분야 경력 쌓기 “일본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국제개발협력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UN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UNV 지원... (최00/20대/태국/2017-2017년)

일부는 ‘여가’나 ‘도전’을 목적에서 해외봉사에 참여하였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퇴직 후 지루한 일상에서의 탈출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경우가 많았으며, 지친 일상으로부터의 도피나 자신의 변화, 자신감 향상, 해외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에서 해외봉사에 참여하는 사례이다.

퇴직 전후 새로운 삶 도전 “교육부의 장학사로 목표 지향적으로 살았죠. 교감, 교장 돼야하고... 이렇게 성공 지향적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사람들에게 정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의 전환이 됐죠” (이00/50대/몽골/2013-2014년)

지친 일상에서의 도피 “직장생활을 10년 하다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았다. 스트레스는 주로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떨쳐내고 싶어서 해외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큰 결단이긴 했지만, 모든 것은 변화가 있어야 아니까요.” (이00/30대/튀니지/2009-2012년)

자신감 향상, 자신의 변화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무대에 서면 설수록 자신감을 잃어가는 제 모습에 약간 우울증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러면서 내면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00/20대/에과도르/2010-2012년)

막연한 호기심 “한비아 씨의 중국 견문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머니하고 나이가 같은데, 저렇게 도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고 더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해외봉사단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이00/20대/동티모르/2009-2009년)

3) 맥락적 조건 : 해외봉사 근원적 특성

맥락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 하에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를 야기하는 특수조건 즉, 중심현상 발생 정도와 방식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Strauss & Cobbin, 1989). 여기에는 정부파견 해외봉사 사업 갖는 근원적 특성이 작용한다. 먼저, 참여자들이 해외봉사 제도를 이해하거나, 파견국에 대한 이해 정도, 연령과 학력 및 전문성 등에 따라 각자 다른 역량을 갖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 놓이더라도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활동국가에 대한 선입견 “에티오피아에 가기 전에는 흑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조금 있었어요. 매스미디어를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범죄조직에 주로 흑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좀 무섭고 거칠고 좀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함께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 친절하고 순수하고 마음씨 좋은 분들이었어요.” (김OO/50대/에티오피아/2018-2020년)

해외봉사자 개인의 상이한 역량 수준 “제가 맡았던 사업은 재난 위험 경감 사업이었어요. 화산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받게 하기 위한 그리고 사망률이 라든지 이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제 자신이 재난 위험에 대한, 섹터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을 많이 방문했지만 저는 업무가 끝나고 나면 논문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 사례를 공부하면서 그런 봉사 봉사활동 속에서 전문성을 조금 더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OO/20대/과테말라/2018-2019년)

파견국의 개별적 특성은 해외봉사자들의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파견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질병, 안전, 음식, 거주 환경 등의 생활환경이 상이하다. 또한, 국가별로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동양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에는 현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며, 활동기관이 해외봉사자와 처음 협력하는 경우에는 해외봉사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해외봉사자에 대한 적절한 활동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 학습의 한계 “초반에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베트남 북부의 말과 남부의 말이 좀 다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남부에서도 외곽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 남부에서도 더 심한 사투리를 쓰는 지역에 가게 된 거죠. 하노이(수도)에서 북부 말을 열심히 배워서 간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임지에 갔는데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엄OO/20대/베트남/2006-2008년)

상이한 활동 여건(열악한 생활 환경) “벽을 타고 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지붕에서 푹푹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집을 고쳐주시죠. 그렇지만 고쳐도 또 새죠...한 번은 바퀴벌레가 너무 많다. 그랬더니 현지인 코워커가 하는 말이 ‘아마도 네가 이빠서 그런 것이다’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바퀴벌레가 아마도 수컷일 거라고, 네가 예쁘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그렇게 너희 집에 찾아오는 거라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정전이 되거든요. 근무하고 집에 왔는데 불을 켤 수도 없고 음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OO/20대/인도네시아/2001-2009년)

상이한 외국인 수용성(동양인 차별적 인식) “탄자니아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매우 많고 인식이 안 좋은데...동양인을 보면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제가 걸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인은 다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더 ‘중국인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놀렸었습니

다.”(오00/20대/탄자니아/2012-2014년)

현지-국내 제도 차이로 인한 협업 어려움 “응급의료센터 개원을 해야하는데, 모든 물품을 약품이나 물품을 다 환자가 들고 와서 의료진에게 건네줘야 진료가 가능한 상황...과연 어떤 물건이 얼마나 필요한지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기반이 되는 데이터 조사를 했고요. 제도가 좀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컸지만...”(정00/40대/카메룬/2013-2020년)

해외봉사자들은 현지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활동을 수행하는데, 안정적인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모든 해외봉사자들은 활동 기관이 지정하는 코워커(co-worker)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코워커를 통한 활동 지원 “코워커는 원래 은행원이었는데, 그 주 정부에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됐는데요. 중남미 사람들 중에 시간 개념이 가장 철저하고 돈 관리가 제일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인상에 남고, 일을 할 때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미처 만날 수 없는 지역주민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최00/30대/에콰도르/2007-2009년)

4) 중재적 조건 : 새로운 역할 모색

해외봉사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외에 스스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다.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작용/상호작용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저해하는 조건을 의미하는데(Strauss & Cobbin, 1989),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한국 문화를 매개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지역주민을 위한 한국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한식 교육,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등 현지 주민의 요구(needs)를 고려하여, 업무 외의 여가 시간을 할애해 추가적인 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1989년 최초의 해외봉사자를 포함한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한국 문화'를 매개로 현지 주민과 관계를 강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 교류 “태국은 6.25 전쟁 때 파병을 했던 나라라서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당시에 태국 국민 드라마 <아리랑>이 있었는데, 태국 군인과 한국 시골 여성의 러브스토리예요. 배경음악이 아리랑이었는데, 아리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00/20대/태국/1993-1995년)

한국어 교육 “저는 간호단원이예요.) 매주 퇴근 후에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엑소를 너무 좋아했어요. 엑소 캘린더도 사다 주고요. 나중에 시험에 붙어서 한국에 일하러 간다고 인사를 왔는데, 취미로 배운 한국어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신00/50대/캄보디아/2011-2013년)

또한, 해외봉사자들은 당초 주어진 업무 외에 지역주민이나 기관의 새로운 요구(needs)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에 파견된 봉사단원들과 지역 봉사를 수행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동화책 및 음반 제작 등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활동 수요를 발견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기획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탐색한다.

새로운 수요 적극 이행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영어과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태국은 현재도 관광산업이 중요한 산업이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영어과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특별히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저는 봉사단 입장에서 요청하는 일을 당연히 해줘야 하니까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00/20대/태국/1993-1995년)

지역 봉사 활동 “가정방문을 갈 때마다 너무나 비참했고 뭐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물가가 싸서 사비로 집마다 50kg씩, 약 20가구 지급했는데, 일주일 후에 가봐도 죽을 먹고 있고...제가 준 쌀이 좋은 쌀이라 바로 시장에 팔았대요. 이후에는 일주일일에 두 번 4kg 일주일 분량만 지급...” (신00/50대/캄보디아/2011-2020년)

지역 내에서 새로운 역할 탐색 “지역에서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폐강통, 가죽, 나무, 버려진 냄비, 자전거 와이어 같은 걸 가지고 악기를 만들고, 가사도 쓰고, 노래도 하는 아이들이었어요...현지 지역 문제를 가사로 쓰고, 작사-작곡을 해서 음원을 냈어요. CD로 발매돼서 라디오에 송출됐어요...지금은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오00/20대/말라위/2013-2014년)

5) 작용/상호작용 전략 : 우호적 관계 형성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사람이 ‘어떻게’ 중심현상을 다루는지에 대한 패러다임(Strauss & Cobbin, 1989)이다. 현상을 다루거나 대처하는데 수반되는 고의/의도적인 행위로 특정조건으로 작용하여 현상을 조절 또는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해외봉사자들은 현지 적응을 위한 전략으로 현지 주민과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먼저, 현지 주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추진하는데, 성실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동료단원과 협력하여 기관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추진하고, 활동 과정에 현지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과 현지 기관관계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낯선 해외봉사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범적이고 성실한 활동 모습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여서 저를 손녀처럼 매우 어리게 보시더라고요. 같이 일을 해야하는데, 저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그분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사업을 제안드리고...필리핀 분들은 야근을 안하는데, 저는 야근도 하고...나중에는 오히려 뭘 도와

줘야하지? 했어요.” (김OO/20대/필리핀/2012-2014년)

동료 단원과의 협력을 통한 기여 활동 “학교를 갈 때 현지인들 생활을 가깝게 보려고 골목길로 늘 걸어 다녔거든요...아이들이 저를 보면 중국인이라고 놀리면서 따라오고...돌을 던져서 머리를 깨매기도 했어요...동영상을 찍어서 기관 선생님에게 얘기하니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아이들 뺨을 때리고 그랬어요..단원들과 이야기해서 세계시민교육을 했어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니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아이들이 많이 변화했어요.” (엄OO/20대/베트남/2006-2008년)

현지 주민 참여 기회 제공 “활동하던 마을에 상대적으로 노는 청년이 많았어요. 학력도 낮아서 문맹률이 높고 일을 갖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단원들이 생활비를 모아서 청년 경제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버섯재배사와 양어장을 했습니다. 참여하는 청년을 인근 버섯 재배 농가에 보내서 교육도 시키고, 종사를 사 와서 버섯을 키우고, 소득수준을 올리고...” (전OO/20대/인도네시아/1990-1992년)

현지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해외봉사 단원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 다니면서 교사 연수를 했는데, 그 연수를 통해서 많은 교사들에게 도움을 준 게 부듯해요. 그때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일본 봉사단도 같이 협력을 했거든요.” (김OO/50대/몽골/2013-2015년)

해외봉사자들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지어 역량 향상을 위해 애쓰며, 현지 주민에 대한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거나, 수혜자, 기관관계자, 친구, 현지어 강사 등과 다양한 층위의 관계를 형성한다. 한국 정부파견 해외봉사자들은 주로 정부부처 및 하급기관, 교육청이나 일선 교육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KOICA 자문단과 같은 전문 봉사자들은 활동 대상국의 정부부처에 직접 파견되어 소속 공무원들과의 밀접한 교류협력을 수행하고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일본, 미국 등의 해외봉사자들과도 교류하며, 여가 시간을 활용해 함께 여행을 하거나 개인적 교류를 하는 등 현지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 노력을 기울인다.

현지어 역량 향상 노력 “그 표현 방식이나 의사소통 방식이 처음에 참 낯설고 힘들었던 것 같고, 어떤 물건을 사면 제가 외국인인니까 바가지를 씌우면 그게 참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내가 저들처럼 현지어를 갖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언어 공부를 한 저녁때, 혼자 있을 때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자기 전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전OO/20대/인도네시아/1990-1992년)

마음가짐 변화 “저는 가부장적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와서...이기주의가 저의 몸속에도 녹아 있었고...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저에게도 가슴을 열지 않을 것이고...저 또한 많은 자원봉사자와 파트너들과 활동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다른 나라에도 사람 사는 것은 똑같

습니다.” (성OO/20대/파푸아뉴기니/1991-1993년)

다양한 층위의 관계 형성 노력(지역 주민) “한국으로 치면 면장님. 면장님 가족하고도 친했어요. 저를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면장님 부인이 저를 어머니처럼 대해주고...” (임OO/60대/르완다/2014-2016년)

다양한 층위의 관계 형성 노력(지방공무원) “보고르라는 지역에서 보고르 군청에서 지역사회개발 분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당시 그 공무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였는데...제가 처음 간 단원이어서 인도네시아 공무원복을 입고 활동했어요...원래 입으면 안되는데...” (정OO/20대/인도네시아/2001-2009년)

타국 봉사단과의 교류 “일본 NGO, 중국 NGO 분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교류했는데, 제가 떠난다고 하니깐 일본 NGO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 활동가가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OO/20대/동티모르/2007-2009)

여가 시간 공유(여행 등) “제가 2003년도 한국에 오기 전에 같이 송별회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워커분들 가족분들 다 같이 여행을 갔었어요.” (정OO/20대/인도네시아/2001-2009년)

6) 결과 : 해외봉사 가치가 지속되는 삶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도출된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한다(Strauss·Cobbin, 1989). 즉, 해외봉사자들이 현지 적응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 즉, 현지 주민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노력을 통해 나타난 최종적 성취인 것이다. 1990년대 초반의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봉사자들은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활동 중 관계를 맺은 현지 주민이나 타국 봉사자들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었다. 페이스북 등의 SNS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도구가 되며, 일상적인 소통을 지속하며 살아가다 여행이나 출장 등의 계기에 현지 주민 직접 교류하기도 하였다.

SNS 통한 소통, 직접 교류 “현장에서 만난 시민사회 활동가나 같이 일한 동료와 SNS로 여전히 연락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에 여행을 오면 제가 마중 나가서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특히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서 광화문, 경복궁 등의 관광지도 데려가서 설명하고...저도 그 친구들 국가에 갔을 때 관광을 시켜주거나 언어, 문화를 알려주어서 풍부하게 구경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최OO/20대/태국/2017-2017년)

SNS 통한 소통 지속 “중남미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정말 많이 해서 계속 연락하고...너 언제 갈라파고스에 다시 올 거야?를 묻고...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사진을 올리니까 잘 크는지 같이 얘기하고, 언제나 큰 포옹과 큰 사랑을 보낸다. 신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전해주세요. 그래서 늘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죠.” (최OO/30대/에콰도르/2007-2009년)

해외봉사자들은 귀국 후에도 해외봉사 가치를 국내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해외봉사가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으며, 국내 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지원 활동을 펼치거나, 특히 지역 내 정주하는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등의 거주 외국인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외에 기후환경 등의 글로벌 의제에 관심을 갖고, 해외봉사의 가치를 국내 환원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탐색한다. 일부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거나 소셜벤처, 개발도상국 발전을 지원하는 연구 분야 등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봉사를 통한 가치관 변화 “세상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관건인데, 태국에서 보냈던 시간 속에서, 제가 마주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분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걸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가 너무 조금하거나 정답만을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조금은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배웠고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늘어서...” (권OO/태국/2017-2020년)

국내 취약계층 지원 활동 “미혼모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국어 교사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전화를 해서...연락이 오면 가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OO/50대/몽골/2013-2014년)

지역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관심 강화 “2003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제가 찾아갔어요. 인도네시아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방인이 되어봤기 때문에 그분들도 힘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인도네시아의 향수병을 달랠 수 있었어요.” (정OO/20대/인도네시아/2001-2003년)

글로벌 의제에 대한 관심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는 순간의 경험을 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되고 이게 나의 삶에 녹아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해외 봉사는 나와 세상의 연결고리...” (유OO/20대/몽골/2005-2007년)

진로 변경 “개발도상국의 정책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개도국의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자문사업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개발도상국의 정책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학문적인 영역으로 제 진로를 설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OO/과테말라/2018-2019년)

무엇보다 해외봉사자들은 귀국 후에도 자신이 활동했던 국가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며 살아가고, 필요한 경우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활동 국가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을 하거나, 국내에서 활동 국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식당을 창업하거나 세계시민 교육을

등의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일부는 해외봉사에 재참여 하여 활동 국가나 다른 국가의 개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질적 정서적 지원 “시민사회 활동가로 만난 인도네시아 000라는 친구가 있어요.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고 학업도 계속하고, 시민사회 활동가로 성장해서 UN 등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지금도 SNS로 연락을하는데 그 친구 활동을 보면서 아직도 응원하고 연락을 주고 받고 지냅니다...코로나인데 오히려 더 활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전히 감명 깊게 활동을 보고 있어요.” (최00/20대/태국/2017년-2017년)

해외봉사 재파견 희망 “NGO 봉사단으로 파견된 게 제 20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했던 전문성과 국제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약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교두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시 파견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도 언제든지 정말 다시 파견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쪽에 파견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00/20대/미얀마/2018-2020년)

미얀마 청소년 지원 사업(창업) “미얀마에서 요리분야 활동을 했는데요, 코이카 활동을 마치고 원래 2-3달 후에 미얀마로 가서 학생들과 식당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못 들어가서 지금은 미얀마 중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소셜 레스토랑과 밀키트를 창업하고 있습니다.” (최00/30대/미얀마/2018-2020년)

활동국가 인식 제고 활동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세계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제가 다녀왔던 탄자니아와 한국을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00/20대/탄자니아/2012-2014년)

3. 선택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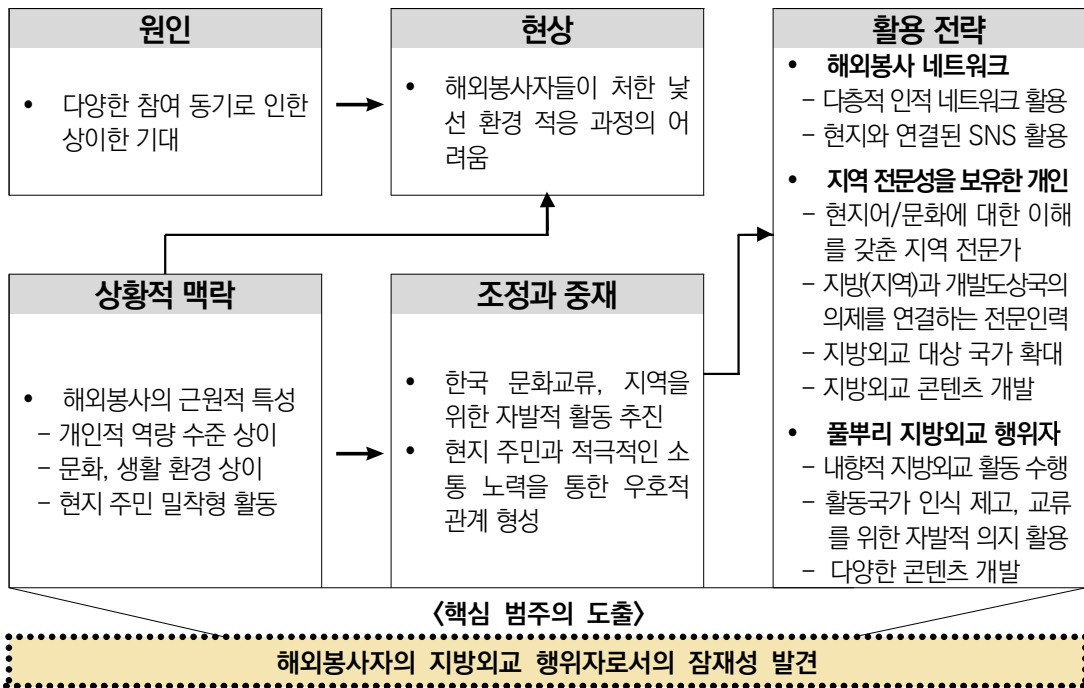
1) 핵심범주 및 이론 생성

본 연구가 도출한 핵심 범주는 ‘해외봉사자의 지방외교 행위자로서의 잠재성 발견’이며, 핵심 범주의 생성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해외봉사자들은 각자의 참여 동기에 기반하여 해외봉사에 대한 상이한 기대를 갖으며, 연령, 경력, 전공 등 다른 수준의 역량을 기반으로 활동 기관의 요구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활동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반드시 현지어를 습득해야 하며, 관습, 사회 제도 등의 문화적 이질성과 주거, 통신 등 열악한 인프라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큰 탓에 필연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해외봉사의 근원적 특성을 감안하여, 활동 기관은 봉사자들의 활동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코워커(co-worker)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지 적응의 어려움은 상존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축코딩의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도출되었다. 해외봉사자들은 현지

주민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한다. 주어진 업무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현지 주민들이 흥미로워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한식, K-pop, 한국어 등의 한국 문화이다. 한국 문화를 매개로 하는 ‘다가가기(engagement)’는 한류가 시작되기 전인 1990년대 초반 봉사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활동 지역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언급한 중재적 조건이었다. 이를 토대로 해외봉사자들은 성실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현지 주민을 활동에 참여시키거나, 역량 강화를 위해 애쓰며, 개인적으로는 현지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수혜자, 지역주민, 기관관계자 등 다양한 층위의 현지 주민과 타국 봉사자와 교류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귀국 후에도 해외봉사자와 현지 주민과의 관계는 SNS를 기반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주민에서부터 (지방)정부 관계자에 이르는 다층적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소식을 공유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국가를 오가며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다. 해외봉사자들은 현지어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지역 전문가이자, 지역과 개발도상국의 의제를 연결한다. 한편, 해외봉사들이 파견된 142개국 내에서도 봉사자가 파견된 다수의 지방과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며, 지방외교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방외교의 전문인력으로서의 활용성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 내의 외국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으며, 활동 국가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과 교류 협력, 자발적 참여 의지를 갖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풀뿌리 지방외교의 개인(individual)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이론 생성 과정-핵심 범주의 도출



2) 이론의 검증

도출한 핵심 범주는 Strauss(1987: 36)가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검증하였다. 첫 번째, 모든 범주가 중요한 설명 개념으로 사용되도록 충분히 추상적인지이다. 원자료를 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한 후 공동연구자가 반복하여 상호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1인의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간 주관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최종적으로 범주의 구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였다. 두 번째, 자료에 자주 등장함으로써 사례에 개념을 가리키는 지표가 있는지이다. 6가지 하위범주를 중심으로 하위 개념과 연결되는 인터뷰를 분류하고, 예외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탈락시키지 않고 재검토하여 이론 내에서 설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현상이나 사례 적용 시 일관성에 대한 검토이다. 해외봉사의 공공외교 차원의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Sobocinska, 2023; Tiessen, & Lough, 2021; 주미영, 2015; 한송이·최은봉, 2023), 한국 정부도 해외봉사 파견 목적을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 증진으로 정하고 있다.¹⁰⁾ 아직까지 지방외교 차원에서 해외봉사자의 역할을 다룬 연구는 부재하나, 공공외교가 지방외교에 있어 발전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해외봉사에 대한 지방외교 차원의 함의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일반 이론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향후 연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추상적인지에 대한 검토이다. 2인의 공동연구자 간의 반복적인 상호검토 후, 1인의 외부 전문가에게 본 연구의 핵심 범주 및 이론적 모형과 설명을 제시한 결과, 해외봉사자의 지방외교 차원의 잠재성을 발견하는데 연구의 핵심 범주가 적절하게 제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이론 생성 과정 모형에 반영하였다. 다섯 번째, 각각의 범주가 핵심범주를 설명하는데 깊이와 설명력이 적절한지이다. 축 코딩에서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을 토대로 핵심범주를 제시하였으며, 현상을 시작으로 원인-상황적 맥락-조정과 중재-활동 전략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가 지방외교에 있어 해외봉사자의 잠재력을 탐색하기 위한 것인 만큼 축코딩 결과를 토대로 해외봉사자의 역량과 자산이 지방외교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외교와 해외봉사에 관한 기존 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VI.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으로 추진되는 해외봉사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근거로 지방외교와의 연계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해외봉사 경험과 인식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심현상은 해외봉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낮선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의 어려움'이다. 원인은 다양한 참여 동기와 해외봉사 근원적인 특성에서 기인한다. 해외봉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예기치 못한 외국인 차별을 경험하거나, 의사소통

10) 출처 : https://www.koica.go.kr/koica_kr/947/subview.do (검색일시 : 2024년 1월 8일)

의 한계로 일상생활과 봉사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주어진 역할에 비해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문화적 이질성과 열악한 생활 여건에 놓이게 되는 경우 발생하였다. 다음, 상황적 맥락에서는 ‘해외봉사의 근원적 특성’이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해외봉사자 개개인은 다른 특성을 갖는데, 활동 국가에 대한 인식과 활동 역량이 모두 상이한 것이다. 파견국가의 문화적 이질성도 어려움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해외봉사자들은 현지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활동 방식이 해외봉사자들을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주요한 도구로 인식하고(Georgeou & Nichole, 2012; Jackson et al., 2016), 대안적 공공외교 수단으로 인정하는 까닭이다(Tiessen, & Lough, 2021).

이어서, 원인과 상황적 맥락의 부정적인 측면은 조정과 중재조건을 통해 완화된다. 해외봉사자들은 현지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새로운 역할을 탐색하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현지 주민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특히, 드라마, 음악, 방송 등의 한국 문화는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가 되었으며, 이는 공공외교나 지방외교의 실행 전략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H. Nicolson, 1988; 외교통상부, 2012). 마지막으로, 해외봉사자들은 귀국 후에도 SNS를 통해 협력국 주민과 네트워크를 지속하며 일상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해외봉사 경험이 환경보호나 인권 등의 글로벌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지방외교가 공동체의 상호호혜적 이익 달성을 위해 추진되며, 환경보호, 사회개발, 인권보장 같은 전 지구적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와 협력에 있다는 점에서(안성호, 1998: 228~229), 해외봉사자들의 삶의 방식은 지방외교 추진 목적에 조응한다. 또한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국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활동 국가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내향적 국제화 관점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과의 공존을 위한 시민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우양호, 2012: 197~19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지방외교 관점에서 해외봉사가 갖는 잠재성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양한 층위의 현지 주민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SNS로 연결된 네트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현지 수혜자와 일반 주민은 물론, 학교, 행정기관, 지방정부, 정부부처에 파견되어 활동하면서 다양한 층위의 현지주민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해당 국가에서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지방외교에 있어 해외봉사자가 갖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크다. 두 번째, 해외봉사자는 지방외교 행위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개인(individual)’이라는 점이다. 지방외교는 국가, 콘텐츠,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나(고경민, 2008:4; 우양호·이정석, 2010:23), 해외봉사자들은 현지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과 글로벌 의제 잇는 지방외교 전문가로서의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관심은 해외봉사를 지방외교와 연계하고 참여 가능성을 확장하며, 외교정책으로서의 해외봉사 성과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외교 차원에서 인적 역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세 번째, 해외봉사자 개인 SNS 채널의 지방외교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다. 지방외교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상대국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하며, 이때 SNS의 활용이 중요하다(김상배, 2012: 123~127). 그러나,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상대국 주민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한

다.¹¹⁾ 해외봉사자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지 주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지방외교의 효과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파견한 해외봉사자는 약 8만 5천 명에 달한다. 이들의 네트워크에 관해 논의된 바는 없지만, 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 주민 수는 해외봉사자 수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다. SNS 통한 단순한 연결만으로 외교적 가치를 논하는 것은 비약이겠으나, 본 연구를 통해 귀국 봉사자 네트워크의 비교적 높은 중심성(centrality)¹²⁾이 확인된 만큼, 지방외교의 공적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들이 갖는 지역 전문성과 자신-글로벌 의제-활동국가를 연결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지방외교의 주요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내에서도 일자리 관점에서의 양적 성과 창출에만 관심을 갖으며, 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노력은 사실상 부재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외교 논의에서 해외봉사자들의 잠재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KOICA가 해외봉사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한 인터뷰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과 방대한 구술을 이론적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간주관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최초 파견 봉사자를 포함해 30년 동안 다양한 시기에 활동한 해외봉사자를 인터뷰한 유일한 질적자료를 활용한 점과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근거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지방외교적 함의를 발견한 예비이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정책적으로도 지방외교의 다양한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행위자를 발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해외봉사자들의 네트워크 유형을 분석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네트워크가 작용 방식, 사례 연구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된 예비이론을 검증 및 보완하고,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경민·황경수·홍민지. (2008). 멀티트랙 외교와 한국 지방외교의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 외교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2(3): 283-312.
- 권상철. (2018). 해외봉사활동의 양면성과 도전: 봉사여행과 개발봉사 사이. 「한국지리학회지」, 7(3): 415-433.
- 김상배. (2011).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가전략」, 17(3)
- _____. (2012). 소셜미디어와 공공외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 「국제정치

11) 출처 : <http://www.nuriilbo.com/mobile/article.html?no=426244> (검색일시 : 2024년 1월 8일)

12) 네트워크 외교에서 중심성(centrality)이 높아지도록 연결망을 맺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연결된 관계를 숫자를 많이 늘리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행위자 간 거리를 가능한 가깝게 하는 '근접 중심성(closen centrality)', 네트워크 상에서 어느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 사이에 놓이게 되는 '매개 중심성(betweeness centrality)'은 수준이 높을수록 소통이 단절될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Freeman, 1977; 1979).

- 논총», 52(5): 117-142.
- 김찬란·이선미. (2011). 글로벌 시민성의 관점에서 본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A 대학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 「시민사회와 NGO」, 9(2): 33-56.
- 박경국. (2006). 「한국의 지방외교정책」,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 박인심. (2019). 해외 교육봉사 프로그램 참여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경험과 인식, 「글로벌교육 연구」, 11(4): 110-140.
- 송기돈. (2012). 스마트파워-복합네트워크 외교양식과 한국 지방외교에의 발전적 함의 연구-미국형 외교변환 모델 중심,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327-358.
- _____. (2019). 외교의 외연적 개념 구도를 통한 공공외교와 지방(정부)외교의 특성 및 상관성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3(2): 63-91.
- 안성호. (1998). 지방자치외교의 성격, 「한국행정학보」, 32(4): 223-238.
- 우양호. (2012). 우리나라 도시 및 지방의 내향적 국제화 수준과 그 영향요인: 거주외국인과의 '접촉과 화합'을 위한 과제, 「지방행정연구」, 26(1): 193-222.
- 우양호·이정석. (2010).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393-421.
- 윤견수. (2008). 질적 연구의 다양성과 공공조직 연구의 확장, 「한국조직학회보」, 5(3), 163-198.
- 외교통상부. (2012). 「2012 외교백서」. 서울:외교통상부. 2017.12
- 이동성·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 이상안·조현민·오세비·한진섭·김란·신유정·박혜성. (2021). 해외봉사단 참여 장려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연구-국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021.
- 주미영. (2015). 글로벌 신뢰국가 이미지 형성을 위한 한국의 공공외교 연구, 「정치정보연구」, 18(2): 31-58.
- 최정묵·유병선. (2022). 한국 지방정부 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2(2): 53-73.
- _____. (2023). 「한눈에 읽는 2022년 WFK 주요 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023.
- 한송이·최은봉. (2023). 일본의 아시아 ODA 확대와 청년해외협력대의 설립: 일본은 왜 1960년대 일본형 평화봉사단을 출범했는가?, 「문화와 정치」, 10(3): 181-214.
- Freeman, Linton C. (1977). A Set of Measure of Centrality based on Betweenness, Sociometry, 40: 35-40
- Kuznetsov, A. (2014). Theory and practice of paradiplomacy: Subnational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affairs, Routledge
- Georgeou, N. (2012). Neoliberalism, development, and aid volunteering, Routledge
- Hocking, B. (2005). Rethinking the 'new' public diplomacy. In The new public diplomacy: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28-43
- Jackson, E. J. and Adarlo, G. (2016). 'Soft Power', Selfishness, or Altruism? Motivations and Satisfaction of US-Based International Volunte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Diversity in Education. (<http://hdl.handle.net/10722/229587> 검색일시 : 2024년 2월 1

일)

- Lough, B. J. (2015).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Bonn: United Nations Volunteers.
- Lough, B. J., Sherraden, M. S., and McBride, A. M. (2014). Developing and utilising social capital through international volunteer service, *Voluntary Sector Review*, 5(3), 331-344
- Melissen, J. (2005). The new public diplomacy: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The new public diplomacy: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Palgrave Macmillan UK: 3-27.
- Nicolson, H. (2001). The evolution of diplomatic method, London: Toronto Butterworth, 1988, 90
- Nye, J. S. (1990). Soft power. *Foreign policy*, (80), 153-171
- Ockenden, N., Hill, M., and Stuart, J. (2012). The Big Society and volunteering: ambitions and expectations. *The big society debate: A new agenda for social policy?*, 149
- Sobocinska, A. (2023). The Interpersonal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unteering and Grassroots Diplomacy in the 1960s.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45(6), 903-918.
- Strauss, A. L.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2nd Ed, CA: Sage Publishers
- Terrazas, A. (2010). *Connected through service: Diaspora volunteers and global development*.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 Tiessen, R., and Lough, B. J. (2021).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unteering as alternative public diplomacy, *Handbook of Development Policy*, 283
- Smith, D. H. (1981). Altruism, volunteers, and volunteerism,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0(1), 21-36.
- Smythe, E., and Smith, P. J. (2002). New technologies and networks of resistance. *Cyber-diplomacy: Managing foreign poli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48-82.
- Sobocinska, A. (2023). The Interpersonal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unteering and Grassroots Diplomacy in the 1960s.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45(6), 903-918.
- 나눔일보, 대통령직속 청년위, '베트남에서 청년 해외취업·창업지원...', 2024.2.1.
- 누리일보, 경기도, '글로벌 크리에이터 만난 김동연지사...', 2024.1.8
- 매일경제, 청년리더 10만명 양성한다, 2023.8.5.
- 이뉴스투데이, WFK 해외봉사단 '국가브랜드 우수과제 선정', 2024.2.10
- KBS 뉴스, 김영삼 대통령 한국 청년해외봉사단과 오찬, 2023.8.5.

오지은(吳知恩) :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며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였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거버넌스, 지방정부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 경제적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요인 분석”, “KOICA 봉사단과 현지 활동기관 파트너십에 대한 탐색적 분석” 등이 있다.(oje@yonsei.ac.kr)

유성훈(兪成勳) :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국제협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사업 기획 전반과 이행 및 평가 전반에 걸쳐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디지털 ODA, 원조 결정 요인, 정책자문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주요 공여국의 정책자문 ODA 배분 결정요인 분석: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Role of Digital Technology in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cus on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등이 있다.(shyoo@kisdi.re.kr)

Abstract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Significance of Korean Overseas Volunteers: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for Local Diplomacy

Oh, Ji-eun
Yoo, SeongHoon

Local diplomacy transcends the pursuit of exclusive interests, focusing instead on universal developmental agendas such as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human rights promotion. It fosters reciprocal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global corpor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Despite the active engagement of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in various local diplomatic activities, they face limitations due to organizational capacity, budget constraints, lack of specialized personnel, and insufficient cont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local diplomac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itiatives, specifically through overseas volunteer progra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dispatched approximately 85,000 volunteers to 142 countries, where they live among local communities and engage in diverse form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thereby serving as instruments of soft power. Based on interviews with 32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se activities between 1990 and 2020, analyzed through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 study finds that firstly, participants formed multilayered personal networks within their host countries and maintained communication through social media. Secondly, they developed regional expertise and global citizenship, connecting and living according to global agendas. Thirdly, they voluntarily contributed the value of their overseas volunteer experience back to their own communities or engaged in activities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their host countries. Possessing networks that connect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along with regional expertise and a citizenship that addresses global agendas from their local standpoint, suggests the potential of utilizing these individuals as public resources for local diplomacy. This preliminary theory proposes their value as public human resourc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ocal diplomacy.

Key Words: Local Diplomacy, Grounded Theory, KOICA, Volunteers, Network